

좌완불펜 임기준 “내가 특급 소방수”



상체 낮춰 폼 교정...스피드·밸런스 향상
최다승·세이브 등 개인기록 경신
KIA 기대주서 좌완 ‘민을맨’으로 성장

팔은 낮추고, 시야는 좁혔다. KIA 타이거즈 좌완 임기준의 작지만 큰 변화다.

‘좌완 불펜’은 KIA의 오랜 고민이자 숙제였다. 심동섭이 그나마 KIA의 좌완 불펜 명맥을 이어왔지만 지난 시즌부터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다. 올 시즌 ‘고졸 투수’ 김유신과 하준영이 좌완 불펜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미완의 대기.

고민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임기준이 더 강력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중요한 순간 소방수로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빠른 공을 가진 팻던 선발에서 중간투수로 보직을 바꾸면서, 좌완 불펜 운영에 힘이 실렸다.

임기준은 올 시즌 30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3.81의 평균 자책점을 찍었다. 긴박한 상황에 출격하면서 3승 1패 2세이브 2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의 시즌 최다승이자 세이브 이고 홀드 기록 경신도 앞두고 있다.

임기준은 “뚝같이 던지는 데 결과가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다”고 웃으면서도 “2군에 다녀오면서 팔을 내렸다. 팔을 내리면서 제구가 좋아졌다. 밸런스도 좋아졌다. 작구 스피드도 잘 나오면서 승부하는 게 더 편해졌다”며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했다.

시즌 초반하고 비교하면 팔 각도가 내려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체를 숙이면서 이에 맞춰 팔 각도도 내려왔다.

KIA 전력분석팀은 “원래 상체를 많이 세워 던지는 스타일이었다. 상체를 세우다 보니 팔이랑 머리가 멀어졌다. 자연스럽게 상체를 숙이면서 제구가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팔을 내린 임기준은 시야는 좁혔다. 이 부분도 제구와 관련 있다.

임기준은 “타켓을 좁게 보려고 한다. 좁게 좁게 보고 던지니까 집중도 잘 되고 제구도 좋아진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생각 안 하고 내 것 하자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공을 던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피드’는 제구와 밸런스가 어우러진 또 다른 결과물이다. 최고 146km를 기록하는 등 140km 중반의 공을 꾸준히 던지고 있다. 최고 스피드보다 더 의미 있는 부분은 평균이다. 전력 분석팀이 짚은 부분도 바로 이 평균이다. 기록이 심했을 때는 130km 중반까지 떨어지던 스피드가 지금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기준의 또 다른 무기는 견제다. 까다로운 투구 폼의 임기준은 견제 실력도 수준급이다. 상대 입장에서는 쉽게 스타트를 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꾸준히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임기준에게는 ‘특급 필승조’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바로 ‘슬럼프’다. 임기준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발전과 후퇴를 반복했다.

제구와 스피드의 답을 찾은 임기준이 마지막 과제를 풀고 확실한 좌완 불펜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라이더컵 승선?

美, 유럽 골프 대항전 출전자 9월 선발
7차례 출전·홍행 카드... 단장 “특혜 없다”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에 나설 미국 대표 선수 12명 가운데 8명이 오는 9월 13일 PGA 챔피언이 끝난 뒤 결정된다.

라이더컵 미국 대표팀은 선발 포인트순으로 8명을 뽑고, 4명은 단장이 지명한다.

23일 끝난 메이저대회 디오피에서 타이거 우즈가 부활의 신호탄을 높게 쏘아 올리면서 라이더컵 미국 대표 선발 방식이 복잡해졌다. 불과 1주 전만 해도 우즈가 올해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라이더컵 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디오피에서 한때 선두로 나서는 등 예전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그래도 아직 우즈의 라이더컵 출전은 녹록치 않다. 분석이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미국 대표 선발 경쟁에서 현재 6자리는 굳어졌다. US오픈 챔피언 브룩스 켈퍼, 마스터스 우승자 패트릭 리드,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 작년 상금왕 저스틴 토머스, 올해 3승을 올린 바바 왓슨, 그리고 조던 스피스 등 선발 포인트 1~6위는 확정적이다.

남은 2자리는 리키 파울러(7위), 웨브 심프슨(8위), 브라이언 디샘보(9위), 필 미켈슨(10위), 젠더 쇼플리(11위), 맷 쿠처(12위) 등이 다투는 형국이다. 케빈 키스너, 토니 피나우, 브라이언 허먼, 그리고 제이미포 캐빈 나도 이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선발 포인트 20위 우즈가 8위 안에 진입하려면 남은 2차례 대회에서 적어도 한번은 우승해야 한다.

단장 추천을 받는 길도 전보다 더 넓어졌지만 단장이라도 아무 선수나 마음대로 뽑는 것은 아니다. 논란을 피하려고 대개 선발 포인트 9~12위 선수를 낙점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발 포인트에서 앞서고도 우즈에 밀려 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선수의 반발은 물론 우즈가 부진할 경우 단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장 짐 퓨릭은 “어떤 선수가 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이냐가 선발의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FIFA 올해의 선수’ 월드컵 별들의 전쟁

호날두·메시·모드리치·음바페 등 1차후보 발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는 후보 명단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겼다.

FIFA는 24일(현지시간)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포함해 각 부문 후보를 발표했다.

올해의 남자 선수 후보로는 그동안 각종 상을 나눠 가진 호날두, 메시를 비롯해 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시티),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덴 아자르(첼시), 해리 케인(토트넘),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 라파엘 바란, 루카 모드리치(이상 레알 마드리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뽑혔다.

1991년 제정된 FIFA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호날두와 메시가 양분했다.

호날두는 2008년과 2016·2017년 수상자로 뽑혔고, 메시는 2009년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통합 운영된 FIFA 발롱도르는 호날두가 2013·2014년 수상했고 메시는 2010·2011·2012·2015년 주인공이 됐다.

‘삼인자’로 평가받던 네이마르는 두 선수의 벽을 넘겠다고 지난해 FC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부상 약재와 이기적인 플레이 논란 등을 겪으며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이적 신고식

뉴캐슬, 헐시티와 친선경기 후반 교체 출전

이강인 1군 데뷔전

발렌시아, 스위스 1부리그팀과 친선 경기



기성용

지난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니티로 이적한 미드필더 기성용(29)이 새로운 팀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기성용은 25일 잉글랜드 KCOM 스타디움에서 열린 헐시티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24분 존조 셸비의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아 2-2 무승부에 힘을 보탤다.

지난 시즌 뛰었던 스완지시티가 2부리그로 강등된 뒤 6월 30일 뉴캐슬과 2년 계약하며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기성용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뒀 첫 공식 경기이다.

기성용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후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으로부터 한 달여의 휴가를 받았다. 재출전 시간을 가진 기성용은 이달 중순 출국해 23일부터 팀 훈련을 함께해왔다.

등번호 4번을 받은 기성용은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팀이 1-

2로 뒤진 후반 24분 베니테스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월드컵 때 왼쪽 중야수를 다쳤던 기성용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중원에서 그라운드를 누볐다.

‘뉴캐슬맨’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기성용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2018-2019시즌 EPL 개막전에서 대표팀 후배 손흥민(26·토트넘)과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손흥민과 스완지시티 소속이던 기성용은 올해 3월 17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에서 나란히 선발로 출전해 맞대결을 벌였다. 당시 경기에선 토트넘이 3-0 완승을 했다.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손꼽히는 이강인(17)도 발렌시아(스페인) 입단 7년 만에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1군 무대에 데뷔했다.

이강인은 25일 스위스의 크리스트르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 1부리그 로잔 스포르와 프리시즌 경기에서 전반 23분 교체출전으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로잔 스포르와 득점 없이 비겼다.

발렌시아 구단의 B팀인 메스티야 소속인 이강인은 지난 21



이강인

일 2022년까지 재계약을 마친 뒤 곧바로 1군 팀이 훈련하는 스위스 캠프에 합류해 세 시즌 준비에 나섰다. 1군팀 경기까지 뛰는 기쁨을 만끽했다.

비록 정규리그 경기는 아니지만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이강인이 성인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겠다는 차원에서 경기에 투입했다.

이강인은 그라운드에서 나서자마자 전반 34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전반 44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골지역 오른쪽에서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아 득점이 못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메스티야 소속으로 스페인 세군다 B(3부리그)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이강인은 1군팀 경기까지 데뷔하며 ‘발렌시아의 미래’로 인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FC 나상호 K리그2 20R MVP

안영규 수비 부문 ‘베스트 11’에

광주 FC의 ‘해결사’ 나상호가 K리그2 20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나상호는 지난 21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 1995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터트리면서 1-0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는 나상호의 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추가, 4위 부천을 1점 차로 추격하게 됐다.

나상호는 이 골로 10골을 채우면서 K리그2 득점 선두자리를 굳게 지켰다.

부천의 공세를 막으며 무실점 승리를 이끈 광주 ‘캡틴’ 안영규는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와 부천의 경기는 20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뽑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나상호

안영규